



액셀러레이터와 구미지역 연계·활용 방안



2018. 10.

액셀러레이터와 구미지역 연계·활용 방안

1 액셀러레이터 개요

□ 액셀러레이터란?

-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또는 기관을 의미
- 액셀러레이터의 등장은 2000년대 중반 Airbnb, Dropbox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Y-Combinator('05년 설립)가 시초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벤처·창업이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

□ 운영 특징

- (선발과정)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지만 매우 경쟁적인 선발절차
 - 온라인 지원을 통해 전세계 모든 초기 스타트업들이 지원 가능
 - * Y-Combinator(미) 등 유명한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선발률이 1% 내외
- (초기투자) 주로 지분 교환 방식의 초기 창업 준비금(Pre-seed) 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에게는 평균 1~2만 달러 수준의 초기 투자금을 제공하고, 대신 일정 지분(통상 10% 이내)을 취득
- (선발대상) 개인 창업가보다 소수의 창업팀(4명 이내) 선호
- (지원기간) 짧은 기간(보통 3~6개월) 동안 집중 보육
- (기수제) 기수별 창업 지원
 - 참가 스타트업은 기수 단위로 모집되며 같은 기수 내 집단 작업 및 네트워킹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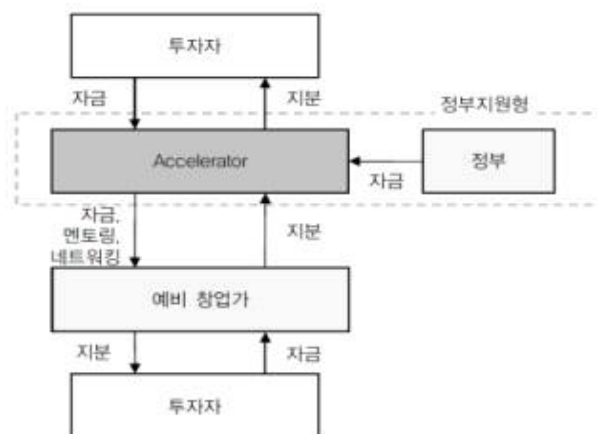
□ 유형

구 분		주요 내용
투자 주체	민간주도형	대부분의 액셀러레이터가 해당, 성공한 창업가나 기업이 상생과 영리추구, 기업전략 차원에서 운영
	정부지원형	정부가 보조금 개념의 투자를 선정된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운영
지원 시기	초기형	초기자금 지급·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 VC·엔젤의 투자를 받기 위한 데모데이 기획 제공으로 종료
	후기형	전통적인 컨설팅과 유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 자문 서비스를 주로 제공
활동 범위	특화형	창업분야의 다양한 멘토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팀을 선발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자금·기술 등 특화된 부분 지원
	지주형	창업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설립, 인수를 모두 수행하는 스타트업 지주회사 형태

자료: 김건우(2017), 한국의 전형적인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연구

□ 비즈니스 모델

- 액셀러레이터의 자금조달은 성공한 기업가나 모기업으로부터 출자 받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 조달된 자금은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시드머니 (Seed Money)로 투자
 - 투자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일정 지분(10% 내외)을 제공받으며, 이후 스타트업의 성장과정에 M&A나 IPO 등의 출구전략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익 실현
- * 회수된 자금은 다시 신규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투자로 재순환



<액셀러레이터의 비즈니스 모델>

2

국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제도

□ 등록 및 관리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주요 업무

-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진행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 등록 및 운영·관리

○ 등록요건

구 분	내 용
법인요건	▶ 전문회사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 비영리법인으로 초기창업자 관련 사업의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인력구성	▶ 벤처캐피탈, 창업 지원기관 내 3년 이상 투자 및 창업기획업무를 진행한 인력,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2명 이상 포함

○ 운영·관리

-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1천만원 투자 및 3개월 지원
- 전체투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 재무적 사항, 투자 사항, 엑셀러레이팅 사항 등 업무운용 상황 등 매월 보고

□ 국내 현황

- '10. 1월 설립된 프라이머(Primer)가 최초이며, '16. 11월 액셀러레이터 제도 도입 이후 116개사 등록('18. 9월 기준)

(2018. 9. 28 기준)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합계
64	9	9	3	6	11	2	1	2	1	2	1	2	3	11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비해 아직 태동단계로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액셀러레이터는 부족

□ 정부지원 제도

- 국내 액셀러레이터 도입 후 정부는 '13년부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선정 등을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년간('13~'18) 27개의 액셀러레이터* 선발 및 지원
 - * '13~'17년 : 21개 기업 선발·지원
 - * '18년 : 6개 기업 선발·지원
 - ▶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로아인벤션랩, 액트너랩, 쉬프트, 더벤처스 등 지능정보기술,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특화된 6개의 액셀러레이터 선정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개요>

사업명	주요 내용
2018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지능정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서비스 모델에 부합하는 특화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유망 스타트업 보육·투자 지원 ▶(지원규모) 1,800백만원 내외, 6개사 내외 ▶(지원대상) 국내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3

시사점 및 구미지역 연계·활용 방안

□ 시사점

- 액셀러레이터는 기존 창업지원체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새로운 역할, 즉 '초기투자+전문보육기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 가능

[참고] 기존 창업지원체계와 액셀러레이터 비교

구 분	초기 투자	시설 지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기간	지원 단위
창업보육센터	×	○		×	×	장기(1~5년)	개별
벤처캐피탈	△	×	×	△	△	지속적	개별
엔젤투자자	○	×	×	△	△	지속적	개별
액셀러레이터	○	△	○	○	○	단기(3~6월)	기수별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6),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아직 초기단계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며, 환경측면에서도 해외에 비해 불리*
 - * (회수) 해외의 경우 많은 후속 투자자에 의해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지분을 인수해주는 투자 유치 행위가 이루어짐. 하지만 국내는 액셀러레이터 투자 이후 후속 투자 행위가 대부분 구주 인수가 아닌 유상증자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 창업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 등록된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구미지역 창업활성화에 활용하기에는 한계점 존재**
 - * 액셀러레이터 중 65.6%가 수도권 지역에 등록되어 있으며, TIPS 지원 창업팀('13~'17)중 지방기업은 28.1% 수준(총 423개 중 119개)
 - ** 기 등록 액셀러레이터의 전문분야는 주로 SW와 바이오분야에 집중되어 지역 스타트업 지원에는 한계
- 결국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 과제

□ 연계·활용 방안

○ 지역내 창업활성화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활동 무대 조성

- 지리적·산업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지역내 제조업체들의 업종전환에 따른 스핀오프나 기존 제조업-스타트업간 협업*을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 필요
-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하드웨어 스타트업 특화사업 추진 :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제품 제작을 구미지역내 기존 제조기업에 맡겨 스타트업과 기존 중소기업 상생 추구
- 지역내 중소기업 중 IP를 바탕으로 한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스핀 오프·창업 지원(지속적 기술개발 지원, IP사업화에 소요되는 투자자금 조달 지원 등)

○ 지역의 액셀러레이터 유입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기반 조성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 투자에 대한 구미시 차원의 지원 강화
- 지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 확대*와 기 운영 중인 구미시·대학내 창업보육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 * 해외에서는 구글, GE, 나이키 등 대기업이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그램이 확산 중
- 액셀러레이터의 지역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DB, 액셀러레이터의 특징·주요 성과(지역내 스타트업이 적합한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Point} 지역의 활동 중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필요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액셀러레이터 등록 예정(10월 중)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운영 방안('18.2.7) : 초기 스타트업의 보육·투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센터의 투자 기능 확충을 위해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대 추진